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국립극장
17th 2026
여우락
페스티벌

07.03(금) — 07.25(토)

국립극장 달오름 | 하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예술감독 이현철 | 음악감독 유재명양

국립극장 17th **2026 여우락** 페스티벌

12개의 섬에서,
우리 음악의 항해가 시작된다!



달오름극장

마침내 민요 개막작
이한철
7월 3일(금) 19:30
7월 4일(토) 15:00
민요와 가요 사이, 다채로운 농도의 국악 크로스오버



하늘극장

물꼬
강산에 X 정보권
7월 4일(토) 19:30
7월 5일(일) 15:00
익숙함과 새로움의 물꼬를 트다



달오름극장

원(願)의 노래
선우정아 X 채지혜
7월 8일(수) 19:30
서로 다른 결이 모여 하나의 '원(願)'으로 퍼져 흐르다



하늘극장

몽중유희
립제이 X 유희 X 박동석
7월 9일(목) 19:30
꿈속에서 벌어지는 PAN.exe



달오름극장

악어때 : 정글 숲을 지나서
동양고주파 X 최예림
7월 11일(토) 15:00
가죽을 두른 마음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하늘극장

여기 우리 MZ가 있다
삼산 X 서의철 가단
7월 12일(일) 15:00
여우락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의 정신을 가장 MZ답게 보여준다!



달오름극장

먼 아리랑, Part II : 달은 시선, 그은 시선
하림 X 구이임
7월 15일(수) 19:30
무언가 달거나 굿는 모든 순간,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



하늘극장

4는1
상자루 X 안예은
7월 16일(목) 19:30
4는 1 그리고 사는 일



달오름극장

놀:음
컨트리공방 X 정운형
7월 18일(토) 15:00
판소리와 블루그래스가 피어내는 살아있는 놀:음



하늘극장

생기로온 장단생활
김백찬 X 김반장과 생기복덕
7월 19일(일) 15:00
불안의 시대, 나만의 생기 템포를 찾는 시간



달오름극장

장마
김수인 X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7월 22일(수) 19:30
7월 23일(목) 19:30
장맛비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국악과 블루스로 풀어내다



하늘극장

네, 다음 곡은요 폐막작
유태평양
7월 24일(금) 19:30
7월 25일(토) 19:30
끝이 아닌 다음을 향해 건네는 노래



2026 여우락 미리보기
〈여우락 인터셉트!〉



공연일정

7월

달오름극장

하늘극장

3 금

마침내 민요 개막작
이한철

4 토

금 19:30 | 토 15:00

5 일

8 수

원(願)의 노래
선우정아 X 채지혜
수 19:30

9 목

11 토

악어때 : 정글 숲을 지나서
동양고주파 X 최예림
토 15:00

12 일

15 수

먼 아리랑, Part Ⅱ : 달은 시선, 그은 시선
하림 X 구이임
수 19:30

16 목

18 토

놀:음
컨트리공방 X 정윤형
토 15:00

19 일

22 수

장마
김수인 X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23 목

수 19:30 | 목 19:30

24 금

25 토

물꼬

강산에 X 정보권

토 19:30 | 일 15:00

몽중유희

립제이 X 유희 X 박동석

목 19:30

여기 우리 MZ가 있다

삼산 X 서의철 가단

일 15:00

4는1

상자루 X 안예은

목 19:30

생기로운 장단생활

김백찬 X 김반장과 생기복덕

일 15:00

네, 다음 곡은요 폐막작

유태평양

금 19:30 | 토 19:30

목차

공연일정

04

예술감독 & 음악감독 인사글

06

공연소개

마침내 민요
이한철

08

물꼬

강산에 X 정보권

10

원(願)의 노래

선우정아 X 채지혜

12

몽중유희

립제이 X 유희 X 박동석

14

악어때 : 정글 숲을 지나서

동양고주파 X 최예림

16

여기 우리 MZ가 있다

삼산 X 서의철 가단

18

먼 아리랑, Part Ⅱ : 달은 시선, 그은 시선

하림 X 구이임

20

4는1

상자루 X 안예은

22

놀:음

컨트리공방 X 정윤형

24

생기로운 장단생활

김백찬 X 김반장과 생기복덕

26

장마

김수인 X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28

네, 다음 곡은요

유태평양

30

만드는 사람들

34

2026 여우락 예술감독 & 음악감독 인사글

예술감독의 글

“우리가 알아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있던 음악, 우리 음악입니다.”

대중음악가로서 좋은 노래를 만들고자 우리 음악과 친해졌습니다. 국악방송 디제이로 매일 우리 음악과 함께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여서 어느새 스스로를 ‘국악 덕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에 착착 감기고, 마음 어딘가로 스며들어 스스로 자리를 찾아가는 음악이 또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알아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저를 알고 있던 음악, 우리 음악입니다.

우리 음악은 깊고 넓은 음악입니다. 오랜 시간 쌓은 공력이 빚어낸 소리의 깊이는, 그만큼 정성스럽게 귀를 열어야 비로소 닿습니다. 더불어 그 안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감동과 즐거움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여우락은 그 매력을 조금 더 가깝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대중적이고 친절한 우리 음악, 그러면서도 우리 음악이 가진 진정한 매력을 놓지 않은 음악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의 키워드는 POP, EASY, CASUAL입니다.

우리 음악계에 새로운 대중적 바람을 불어넣고, 대중음악가들에게는 우리 음악의 특별함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음악인과 대중음악인들은 한겨울에 만나 함께 고민했고, 봄을 지나며 새로운 음악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울여름, 저마다의 색과 향을 품은 공연으로 여러분을 만나려 합니다.

익숙한 듯 낯설고, 낯설지만 어느새 가까워지는 음악.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이 여러분에게 오래 남을 설렘으로 선물되길 바랍니다.

2026년 7월
이한철



음악감독의 글

십 년 전, 갓 국립창극단에 입단한 뒤 여우락 페스티벌에 게스트로 출연했던 순간이 선명히 기억납니다.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던 스물다섯의 저는 여우락 무대에서 처음으로 소리꾼으로서 밴드와 합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음악이 다른 장르와 만나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무척 신선했고, 그 경험은 제게 큰 즐거움으로 남았습니다. 동시에 우리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십 년의 창극단 생활을 마무리한 저는 음악감독으로서 여우락에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길의 시작점에서 만난 자리이기에 설렘도 컸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우락은 십 년 전 첫 여우락 무대가 제게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조금은 늦은 답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여우락을 준비하며 예술감독님과 가장 크게 마음에 두었던 말은 ‘EASY한 우리 음악’입니다. 어렵게 공부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니라, 처음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어깨를 들썩일 수 있는 우리 음악. 우리 음악과 대중음악이 이렇게도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보다 경험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우락은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준비도, 어려운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오셔서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공연이 끝난 뒤 “우리 음악에도 이런 게 있었어?”, “또 보고 싶다”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음악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고,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는 음악이니깐요.

2026년 7월
유태평양

마침내 민요

이한철

7월 3일(금) - 4일(토)

금 19:30 토 15:00

달오름극장

민요와 가요 사이, 다채로운 농도의 국악 크로스오버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의 문을 여는 <마침내 민요>는 예술감독 이한철이 각 지역 민요를 모티브로 새롭게 창작한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으로 민요와 가요, 전통과 대중음악,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우리 음악이 지닌 동시대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한철의 기존 대표곡들이 아닌 포크, 팝, 록, 펑크, 라틴, 레게 등 다양한 대중음악의 문법 위에 민요의 선율과 정서를 담아낸 그의 곡들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감각으로 관객을 만난다.

공연은 강렬한 록 사운드로 재해석한 신곡, 서도민요 '투전풀이'로 시작해 제주민요를 고양이의 밤 산책 이야기로 풀어낸 '이야홍타령', 경기잡가를 바탕으로 한 '달거리'를 지나며 민요의 색다른 변신을 들려준다. 이어 서도민요 '싸름'은 시티팝으로 한여름의 정취를 그려내고, 함경도 민요를 레게 리듬에 담은 '돈돌라리'로 이어지며 지역과 장르를 넘나드는 민요의 매력을 선보인다.

특별 게스트로 참여하는 이희문과 채수현의 무대도 주요 감상 포인트다. 채수현은 '매화타령'과 신곡 'Happy(비나리)', '생각(창부타령)' 등을 통해 경기민요 특유의 섬세한 소리와 대중음악의 리듬감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2025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을 맡았던 이희문은 자신만의 독보적인 해석으로 공연에 힘을 보탠다. 강원도 양구의 '얼레지 타령', '경상도 뱃노래', 경남 사천의 '그물 당기는 소리' 등 이번 여우락을 위해 새롭게 창작된 곡들을 선보이며 민요의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 보인다.

이한철 밴드와 대금 연주자 한충은, 국악 타악 연주가 만들어내는 풍성한 사운드 위에서 이한철과 경기소리꾼 이채현의 노래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공연의 흐름을 완성한다.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르고 즐길 수 있는 친근함 속에 실험성과 창의성을 담아낸 <마침내 민요>는 민요가 오늘의 음악으로 살아 숨 쉬는 순간을 관객과 함께 나누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이한철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동상(1993), MBC 대학가요제 대상(1994) 수상을 시작으로 가요계에 입문했다. 솔로와 밴드 '불독맨션'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폭넓은 음악 세계를 보여주는 싱어송라이터이다. '괜찮아 잘 될 거야'로 잘 알려진 국민 격려송 '슈퍼스타'와 같은 경쾌하고 긍정적인 대표곡과 함께 '산책', '흘러간다', '이야홍타령'과 같은 감성적인 노래들도 들려주고 있다. 국립국악원 <대중음악가를 위한 국악 작곡 아카데미>, <생활음악 시리즈> 등의 국악 활동을 펼쳤고, 현재 국악방송 FM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 DJ를 맡고 있다.

Special Guest



이희문

이희문컴퍼니 대표·예술감독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2025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
2021 서울시 문화상 국악부문 수상
2010 제16회 전국민요경창대회 종합부문 대통령상 수상



채수현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부수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박사(D.M.A)
수원대학교 국악과 특임교수
상주전국민요경창대회 대통령상

연주 이채현(경기소리·타악), 한충은(대금·소금), 박성룡(드럼), 이용규(베이스), 장현호(기타), 노시현(건반), 김성주(색소폰), 장용준(트럼펫)

음향디자인 윤정오

물꼬

강산에 X 정보권

7월 4일(토) - 5일(일)

토 19:30 일 15:00

하늘극장

익숙함과 새로움의 물꼬를 트다

〈물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크록 뮤지션 강산에와 젊은 소리꾼 정보권이 만나 자연과 삶,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의 언어로 풀어내는 무대다. 오랜 시간 시대를 위로해 온 강산에의 음악과 전통 소리가 지닌 깊은 울림이 만나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감각의 음악적 풍경을 만들어낸다. 서로 다른 장르와 세대, 음악적 배경을 가진 두 아티스트는 이번 공연을 통해 각자의 세계를 연결하며 하나의 새로운 흐름, 즉 '물꼬'를 트다.

공연에서는 강산에의 대표곡들이 새로운 옷을 입고 관객을 만난다. '명태', '별뿔없어', '98 아리랑' 등에는 정보권의 소리가 더해져 기존 곡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또 다른 정서를 만들어낸다. 특히 민중적 에너지와 해학이 살아 있는 '꽤지나 칭칭 나네'는 강산에 특유의 자유로운 음악 세계와 만나 더욱 역동적인 무대로 확장된다.

젊은 소리꾼 정보권의 깊이 있는 소리 또한 이번 무대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정보권은 전통의 정서를 담은 '비나리', '적성가'를 비롯해, 국악팀 소곡선과 함께 창작한 '여행'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쳐낸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강산에가 처음으로 '사철가'와 '진도아리랑'에 도전하는 특별한 순간이 펼쳐진다. 오랫동안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온 그가 판소리와 민요를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할지 기대를 모은다.

〈물꼬〉는 단순한 크로스오버 공연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음악적 언어가 만나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전통과 대중음악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무대다. 관객들은 두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 가는 흐름 속에서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는 음악적 공감과 울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강산에

세대와 계층을 아울러 폭넓은 사랑을 받아온 한국의 대표 록 뮤지션으로, 명료하고 힘 있는 가창으로 무대를 압도하는 독보적인 에너지를 내뿜는다. '넌 할 수 있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과 같은 곡을 통해 미래가 불안한 이들의 마음을 달래고 '명태', '와그라노'와 같은 곡으로 강산에만이 줄 수 있는 기분 좋은 에너지와 즐거움을 대중들에게 전하기도 한다. 그의 음악은 시대의 아픔부터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모두를 보듬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정보권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이며, 제52회 전주대사습놀이 명창부 장원(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창극제 〈적벽에 불 지르다〉에서 조조 역, 창극 〈갯오년 만석씨〉 만석 역과 '춘향가' 7시간 완창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뮤지컬 〈적벽〉, 연극 〈스캐터코퍼〉, 창극 〈자궁가교〉, 〈패왕별희〉, 〈마당놀이 모듬전〉, 소리극 〈서편제〉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고 있다.

연주 고경천(키보드), 최만선(기타), 민재현(베이스), 이기태(드럼), 김범식(아쟁), 김한샘(장구),
이아영(피리·태평소·생황)

편곡 최민성

원(願)의 노래

선우정아 X 채지혜

7월 8일(수)

19:30

달오름극장

서로 다른 결이 모여 하나의 ‘원(願)’으로 퍼져 흐르다

〈원(願)의 노래〉는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와 전통 기반 창작음악을 선보여온 작·편곡가 채지혜가 만나 삶 속 다양한 ‘원(願)’의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무대다. 국악이라는 틀에 머무르지 않고 재즈, 월드뮤직, 팝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자유롭게 활용해 익숙함과 낯섦이 공존하는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인다.

공연은 선우정아의 대표곡 ‘원해’의 후렴구를 활용한 오프닝으로 시작된다. 무대 위 모든 연주자의 소리가 하나둘 쌓이며 공연 전체를 관통하는 ‘원(願)’의 주제를 제시한다. 이어 ‘비온다×사철가’에서는 내면의 감정과 시간의 흐름이 교차하고, 선우정아의 오래된 미공개곡 ‘바람’은 흔들리는 마음과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독특한 리듬과 실험적인 사운드로 표현한다. 또한 채지혜의 연주곡 ‘비극의 소용돌이’와 선우정아의 ‘백년해로’를 결합한 무대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지닌 다양한 결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롭게 탄생한 타이틀곡 ‘원(願)’은 채지혜의 작곡과 선우정아의 노랫말이 만난 초연곡이다. 개인의 바람이 서로에게 닿고, 더 나아가 하나의 울림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그리며 공연의 중심축을 이룬다. 이어 ‘도망가자×꽃’은 서로의 존재를 알아보고 함께 나아가는 희망을 노래하고, 재즈적 즉흥성이 살아 있는 연주곡 ‘아리아리’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자유로운 에너지를 전한다.

공연 후반부에는 선우정아의 감각적인 보컬과 팝적인 편곡으로 새롭게 엮어낸 민요 메들리 ‘RE:민요’가 펼쳐진다. 마지막 곡 ‘원해(Finale)’는 공연 내내 등장했던 다양한 ‘원(願)’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며 마무리된다. 세트 드럼 대신 국악 타악과 라틴 퍼커션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리듬, 기타와 피아노, 아쟁·피리·생황이 어우러진 밀도 높은 사운드 속에서 〈원(願)의 노래〉는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소망과 바람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선우정아

선우정아는 진한 음악성과 유연한 표현력을 통해 다양한 재료를 변형하고 재구성한다. 장르의 경계는 지우고, 감정과 이야기는 뚜렷하게 남긴다. 재즈의 깊이, 팝의 감각과 록 에너지, 힙합과 전자음악의 실험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익숙한 요소에 새로운 재미를 더해 대중과의 접점을 놓치지 않는다.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 영화 음악감독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채지혜

전통창작음악그룹 ‘거꾸로프로젝트’의 리더로,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 감각의 창작을 선보이는 음악감독이자 작곡가이다. MBN 국악오디션 프로그램 <조선판스타>에 출연해 결승 TOP4에 오르며 국악의 대중성을 입증했으며, 다양한 공연을 기획·제작하며 전통음악의 새로운 무대 언어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음악감독, 위촉작곡, 편곡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꾸준히 새로운 음반을 발매하며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주 박정미(민요 코러스보컬), 김소엽(피리·생황·태평소), 남성훈(아쟁), 광두일(기타), 전한국(콘트라베이스·베이스기타), 박광현(퍼커션), 정주리(국악타악·퍼커션)

몽중유희

립제이 X 유희 X 박동석

7월 9일(목)

19:30

하늘극장

꿈속에서 벌어지는 PAN.exe

〈몽중유희〉는 세계적인 댄서 립제이, 창작 연희 단체 유희, 그리고 현대적 사운드를 구축해온 음악가 박동석이 함께 만드는 몰입형 퍼포먼스 공연이다. 전통 연희의 장단과 몸의 언어, DJ 사운드가 만나 하나의 꿈의 판을 펼쳐내며 관객을 현실과 꿈의 경계에 세운다. 고향 난장, 놀이판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의식을 재현하기보다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번역하는 데 집중하며, 관객들은 공연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꿈속 판의 일부가 되어 함께 흔들리고 뒤흔게 된다.

공연은 프롤로그 ‘몽문(夢門)’으로 시작된다. 몽중요와 함께 현실에서 꿈의 세계로 향하는 문이 열린다. 이어 ‘뜰썩’에서는 휘몰이 장단을 차용한 비트와 움직임이 빠르게 충돌하며 잠들어 있던 몸의 감각을 깨우고, ‘니나노’에서는 립제이의 섬세한 왁킹 동작과 장구장단이 장난치듯 얹히며 리듬과 몸짓이 하나의 놀이로 확장된다.

공연의 중반부에는 전통과 현대의 감각이 더욱 강렬하게 교차한다. ‘휘영청’에서는 동해안 별신굿의 리듬과 드럼앤베이스 기반의 전자 사운드가 겹쳐지며, 지옥가를 새롭게 해석한 몽계(夢界)가 펼쳐진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가운데 관객은 낮선 풍경 속으로 이끌린다.

‘흔들흔들’에서는 꿈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정령과 본능이 깨어나 판을 뒤흔든다.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풍경 속에서 몸짓은 점차 자유로워지고, 이어지는 ‘어질어질’은 흔들린 세계가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장단과 몸이 서로의 호흡을 회복하는 시간을 그려낸다.

후반부의 ‘유희난장’은 꿈과 현실이 맞닿는 경계의 장면이다. 황해도굿의 음악적 구조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연주는 흠어졌던 기운을 하나로 모으고, 꿈속을 떠돌던 몸과 마음을 다시 현실의 감각으로 이끈다. 굿판이 액을 풀고 삶으로 돌아오는 의식이라면, ‘유희난장’은 꿈의 세계를 지나온 이들이 다시 지금, 여기의 판으로 돌아오는 길목이 된다. 이어지는 ‘흥청망청’에서는 연희와 춤, 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며 한바탕 놀이판이 펼쳐진다.

꿈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서로를 마주하고 웃고 뒤흔며 가장 뜨겁고 자유로운 축제를 만들어낸다. 에필로그 ‘동살’에 이르면 한바탕 지나간 꿈의 잔향만이 남는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채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몽중유희’는 관객에게 묻는다.

“인생 뭐 있나. 한바탕 신나게 놀다 가면 그만이지.”

전통 연희의 ‘판’을 오늘의 감각으로 확장한 이 공연은 웃음과 소통, 리듬과 몸짓 속에서 잠시 삶의 무게를 내려놓게 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립제이

세계적인 왁킹 댄서이자, 여러 권위있는 세계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그 이름을 알리고 있는 립제이는 엠넷(Mnet)에서 방영된 화제의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2021)를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였다. 댄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에티튜드와 압도적인 그녀의 퍼포먼스는 프로그램 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립제이만의 유니크한 캐릭터를 구축했다. 왁킹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들을 증명하고 있는 립제이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한 명의 댄서이자 아이콘이다.

연희컴퍼니 유희

전통 연희를 기반으로 동시대적 무대 언어를 탐구하는 창작단체로 에너지와 유희성을 오늘의 감각으로 재구성하며 관객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미국 워싱턴 존 F. 케네디 센터(John F. Kennedy Center)에 초청되어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으며, 이후 국내외의 다양한 공연장과 축제에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전통의 형식을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는 데 집중하는 유희는 KBS 국악대상 단체상(2025)을 수상하며, 동시대 연희의 가능성과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김영은(연희), 이동근(연희), 오승원(연희), 성유경(연희), 진현우(연희), 지경태(연희), 김향수리(연희), 김한솔(연희)

박동석

한국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현대적 사운드와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는 작곡가이자 연주자이다. 전통 선율의 호흡과 구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시대적 감각의 사운드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예술단 및 연주 단체의 위촉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으며,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 소리축제상(2019)을 수상, <Spectrum of Sound> 작곡발표회 시리즈 등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연주 장삼수(가야금), 이재하(거문고), 김승태(해금), 최민(통소), 박기훈(색소폰)

댄서 최해준, 이태민, 김호정, 노유진, 김아람

연출 임영호 안무 립제이 음악 박동석 <유희난장>작곡 오승원

악어떼 : 정글 숲을 지나서

동양고주파 X 최예림

7월 11일(토)

15:00

달오름극장

가죽을 두른 마음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악어떼 : 정글 숲을 지나서>는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본 동요 '악어떼'를 모티브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음악극이다. 동양고주파와 최예림은 정글 숲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으로, 늑지대를 마음속 불안과 상처로, 악어떼를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단단해진 현대인의 모습으로 새롭게 해석한다. 익숙한 동요를 추억의 재현이 아닌 지금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 풀어내며,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시간을 전한다.

공연은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과 고립의 감정을 담은 '늑의늑'으로 시작한다. 반복되는 가사 "늑과 숲"은 출구없는 순환을 상징하며, 출구를 찾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엇금엇금" 느리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몸의 감각을 그려낸다. 이어 '임계점'에서는 변화와 소멸,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열망이 강렬한 리듬과 양금의 서정적인 선율 위에서 펼쳐진다. '늑', '무채색', '연무'는 시간이 흐르며 닳아가는 마음과 불안, 흔들림의 감정을 차례로 비추며 작품의 정서를 깊게 만든다.

중반부의 '사이클'과 '숨바꼭질', 'Deep Blue 어아라차'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다양한 리듬과 음색으로 표현한다. 특히 양금과 베이스, 퍼커션이 만들어내는 밀도 높은 사운드는 긴장과 해방, 불안과 회복의 감정을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여기에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더해져 겉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그 아래 숨겨진 마음의 곁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공연의 중심에는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악어떼'가 자리한다. 익숙한 선율을 바탕으로 새롭게 탄생한 이 곡은 정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단단한 겉모습과 그 안에 숨은 어린 마음을 상징적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이어 '광명진언'은 불안과 상처를 지나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을 노래하며 깊은 위로를 전하고, 동양고주파만의 색채로 재해석한 '만화경'은 밀양아리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 곡 '시작'에 이르면 공연은 다시 한 번 앞으로 나아갈 힘을 건넨다. <악어떼 : 정글 숲을 지나서>는 결국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루를 버텨내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다정한 응원이자,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걸어가기 위한 음악적 위로의 시간이다.



동양고주파

퍼커션 장도혁, 양금 윤은화, 베이스 함민휘로 구성된 3인조 밴드로 이들의 음악은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 그 어디쯤의 경계에 위치한다. 양금, 베이스, 퍼커션의 독특한 편성 위에 프로그레시브 록을 기반으로 국악, 팝, 포크 등 다양한 요소가 공존하며, 전통과 현대의 감각이 맞물리는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뮤직마켓 '위멕스(WOMEX)' 공식 쇼케이스에 2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위마드(WOMAD)' 칠레 및 로마, 영국 런던 사우스뱅크센터, 미국 뉴욕 링컨센터 초청 공연 등 장르와 국경을 넘어 동시대 관객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윤은화(양금), 장도혁(퍼커션), 함민휘(베이스)

최예림

판소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중음악의 문법을 유연하게 교차시키며 자신만의 크로스오버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국악인이다. JTBC <풍류대장>에서 세미파이널에 진출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고 싱글 '꽃이지네', 'Deep Blue',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서사를 이어오는 등, 방송과 공연 무대를 오가며 전통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전통의 현대화를 넘어 복합적인 감정을 동시대의 언어로 풀어내는 데 강점을 지니며 오늘의 국악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아티스트다.

무용 김도완, 최경훈

음향디자인 베어사운드(최윤녕, 송다영)

기획 (주)엔플러그, 제이엔지 컴퍼니

여기 우리 MZ가 있다

삼산 X 서의철 가단

7월 12일(일)
15:00
하늘극장

여우락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의 정신을 가장 MZ답게 보여준다!

삼산 X 서의철 가단의 <여기 우리 MZ가 있다>는 전통 민속악의 본질을 지켜온 서의철 가단과 '국악계의 장기하'라 불리는 싱어송라이터 삼산이 만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국악인들의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대다. 이번 공연은 전통과 현대, 계승과 창작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현실과 정체성을 음악으로 풀어내며,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국악인들의 목소리를 관객과 나누고자 한다.

오랜 시간 민속악의 원형을 탐구해 온 서의철 가단의 단단한 연주 위에 삼산 특유의 현실적인 가사와 감각적인 멜로디가 더해지며 전통음악은 과거의 유산이 아닌 지금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현재형 음악으로 새롭게 다가온다. 무대에서는 국악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으로서 느끼는 고민과 설렘, 불안과 희망이 솔직하게 펼쳐진다.

공연은 개별 곡의 나열보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전통음악을 배우고 이어가는 과정에서 마주한 고민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 그럼에도 우리 음악을 계속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즐거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서의철 가단이 민속악의 저음역대를 넓히기 위해 새롭게 개량을 시도한 '민속대아쟁'과 '민속대피리'를 포함한 거문고·가야금·대금·해금·장고 등 국악기의 깊은 울림과 기타·베이스의 현대적인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새로운 음악적 소통을 시도한다.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라는 여우락의 정신을 가장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보여주는 이 무대는, 우리 음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 쉬며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삼산

국악의 해학적 정서를 현대적인 팝 사운드로 풀어내는 싱어송라이터다. 2022년 '모르겠어'로 주목받기 시작하여 EP 앨범 등을 통해 현대적 해학을 선보여 왔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X소리의 탄생2' 우승(2024) 및 같은 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뮤즈온 아티스트' 선정으로 예술성을 입증했으며,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 노미네이트를 비롯해 주요 신인 등용문을 휩쓰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독창적인 K-POP 스타일을 구축 중인 삼산은 가장 솔직한 목소리로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

서의철 가단

전통음악의 깊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계승하며 민속악의 본질적 정신을 발전시키는 MZ세대 대표 민속악단이다. 과거 문학과 풍류를 주도하며 시대를 반영하는 음악을 만들던 전문가 집단인 '가단(歌壇)'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통(正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통(傳統)을 만들어가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서의철을 필두로 모인 젊은 예술가들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을 모토로 민속악의 장단과 선율, 시김새를 현대적 시선으로 재해석하여 전통예술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실험하고 실현하고 있다.

김명준(장고), 서의철(소리), 남성훈(아쟁), 남정훈(피리), 소윤선(해금), 강균임(거문고), 김동인(대금), 오은수(가야금)

연주 원종현(편곡·기타), 최지호(베이스)

음향디자인 남승원

먼 아리랑 Part II :

달은 시선, 그은 시선

하림 X 구이임

7월 15일(수)

19:30

달오름극장



무언가 닿거나 굶는 모든 순간,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

2018년 여우락에서 시작된 <먼 아리랑> 공연이 <먼 아리랑 Part II : 달은 시선, 그은 시선>으로 돌아온다. 월드뮤직 아티스트 하림과 전통 기반 음악그룹 구이임은 100년 전 전쟁 속을 살아낸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상실과 귀향, 그리고 시대를 건너 전해지는 노래의 힘을 이야기한다. 실제 전쟁 유적지를 답사하며 작업한 하림의 음악과 구이임의 깊은 서사를 담은 창작곡들은 한 편의 음악극처럼 이어지며 관객을 시간 너머의 여정으로 이끈다.

작품은 제1차 세계대전 속으로 내몰린 청년 그레고리의 시선을 따라간다. 제1장 '전쟁: 그어버린 시선'에서는 '하늘에 불을 놓은 사람', '돌을 던진 자 누구인가', '탕탕'을 통해 인간의 욕망이 만든 전쟁과 단절의 비극을 그린다. 이어 제2장 '생과 사의 기로에서'에서는 '벌판 위에, 울던 사람', '유리공예', '밤의 강가에서'가 죽음과 상실, 그리고 떠난 이를 향한 애도의 감정을 노래한다.

전쟁을 벗어난 그레고리는 제3장 '주인 없는 병사'에서 비로소 고향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풍경', '주인 없는 군인의 노래', '나뭇'은 상처 입은 몸으로 다시 삶을 향해 나아가는 희미한 희망을 담아낸다. 이어 제4장 '귀향: 약속의 노래'에서는 '밀밭의 약속'과 '안개와 노을'을 통해 연인과의 약속,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펼쳐진다.

마지막 제5장 '마침내 달은 시선'은 100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의 우리에게 도착한다. '지평선'과 '흰'은 끝나지 않은 전쟁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래가 가진 치유와 희망의 힘을 전한다.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은 100년 전 그들이 겪었던 상실과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우리에게 도달한 이 오랜 아리랑은 말해줄 것이다. 깊게 그어진 상처라도 결국은 다시 닿을 수 있다고. 오래된 노래가 전하는 이 서늘하고도 따뜻한 생명력은, 비극의 목격자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힘과 꺾이지 않는 희망의 증거가 되어줄 것이다.

하림

1996년 그룹 'Ven'으로 데뷔한 이후, 2001년 솔로 1집 앨범 「다중인격자」와 2004년 2집 앨범 「Whistle In A Maze」를 발표하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출국', '난치병',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와 같은 곡들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다년간의 여행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월드뮤직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 그는, 2010년 문화기획사 '아뜰리에오'를 설립하여 문화 기획자로서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력하며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다.

구이임

각기 다른 전통 기반을 지닌 정가, 경기소리 및 피아노, 가야금으로 구성된 음악그룹이다. 그룹명은 음악적 방향성이 특정한 단어의 의미나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이름을 따서 작명했다. 연주자 모두 주체가 되어 각자의 음악을 제시하고 이를 함께 타협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2024)을 수상하였으며 독일 HfMT Jazz hall Hamburg, 베이징 한국문화원 초청공연 등 국내외에서 활동하며 장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예술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민지(정가), 이채현(경기소리·피아노), 임정완(가야금)

연주 이동준(베이스), 최힘찬(기타·부주키)

여우락 프리토크 Pre-Talk

공연의 문을 여는 10분, 예술가와 공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 진행 및 해설 : 이한철 예술감독
- 시간 : 공연 시작 후 10분간
- 장소 : 달오름극장 객석

4는1

상자루 X 안예은

7월 16일(목)

19:30

하늘극장

4는1 그리고 사는 일

<4는1>은 상자루와 안예은이 함께 만드는 기묘하고도 유쾌한 세계로, 관객은 ‘문 너머의 세계’인 저승으로 초대받으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무대 위 인물들은 이미 이곳의 주민이지만, 막 도착한 관객은 아직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지 못한다. 관객은 한 시간 남짓한 여정 속에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스스로 질문하게 되고,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는 일’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된다. 익숙한 듯 낯설고, 낯선 듯 친근한 공간 속에서 관객은 어느새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공연을 함께 경험한다.

작품이 그려내는 저승은 두렵거나 음산한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를 수 있는 곳이며, 수많은 사건과 기억이 뒤섞여 있는 활기찬 세계에 가깝다. 그곳에서는 웃음과 슬픔, 그리움과 해방감이 공존하고, 죽음을 지나온 존재들은 오히려 삶을 더욱 선명하게 비춘다. 관객은 그 풍경을 따라가며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저승의 혼란스럽고도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 삶의 무게에서 잠시 벗어난 해방감,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우르는 <4는1>은 팽과리·아쟁·태평소의 거친 율림과 기타·베이스의 현대적인 에너지, 그리고 안예은 특유의 독창적인 서사가 어우러져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독특한 음악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전통과 현대, 고풍과 콘서트, 서사와 음악이 자유롭게 교차하며 무대는 하나의 거대한 축제가 된다.

공연은 특정한 답을 제시하기보다 관객 각자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공연을 한바탕 즐긴 관객은 열린 문밖, 각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공연이 남긴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머문다.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삶을 향해 나아가는 공연. <4는1>은 삶과 죽음, 웃음과 눈물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살아 있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다.



상자루

2014년 결성된 3인조 전통 창작음악 밴드로 팽과리·장구·아쟁·태평소의 날것의 음색과 기타·베이스의 현대적 에너지를 한 몸으로 엮어, 전통의 뼈대 위에서 장르의 경계를 지우는 한국적 현대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KB소리상(2019)을 시작으로, 프랑스·캐나다·이스라엘·싱가포르·대만 등 세계 무대를 넘나들었다. 2024년 영국 ‘위마드(WOMAD)’와 ‘케임브리지 포크 페스티벌(Cambridge Folk Festival)’, 2025년부터는 미국 투어를 이어가며 월드 뮤직 씬 안에서 꾸준히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권효창(타악), 남성훈(아쟁), 조성윤(기타)

안예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보적인 음색과 서사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은 ‘홍연’, ‘상사화’ 등 오리엔탈 발라드부터 ‘창귀’, ‘홍련’, ‘쥬’ 등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들까지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인다. 매 앨범마다 확고한 콘셉트와 독창적인 해석을 담아내며 ‘장르가 안예은’이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냈고, 자신만의 색으로 채워진 선명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하게 만드는 유일무이한 아티스트다.

여우락 프리토크 Pre-Talk

공연의 문을 여는 10분, 예술가와 공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 진행 및 해설 : 임희윤 음악평론가
- 시간 : 공연 시작 후 10분간
- 장소 : 하늘극장 객석

판소리와 블루그래스가 피어내는 살아있는 놀:음

블루그래스 밴드 컨트리공방과 소리꾼 정윤희가 함께하는 <놀:음>은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블루그래스와 판소리가 만나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무대다. 미국 애팔래치아 지역에서 발전한 블루그래스와 한국의 판소리는 언뜻 멀게 느껴지지만, 즉흥성과 호흡, 그리고 '이야기'를 중심에 둔 음악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번 공연은 서로 다른 두 전통이 만나 충돌하고 스며드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놀:음'의 판을 펼쳐 보인다.

공연은 단가 '진국명산'으로 문을 연다. 소리꾼의 목소리가 길을 열고 블루그래스 악기들이 호흡을 더하며 익숙한 장단을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낸다. 이어 남도민요 '들국화'와 미국 올드뮤직 'Wildwood Flower'를 결합한 무대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민요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컨트리공방의 창작곡 '초상'에는 '심청가'의 한 대목이 더해져 사랑과 희생의 정서를 깊이 있게 그려낸다.

공연 중반부에는 연주곡 메들리 'Voyage to Raleigh'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호흡을 들려주고, '적벽가'의 적벽화전 대목은 도브로의 거친 슬라이드 사운드와 만나 더욱 웅장하고 긴박한 서사를 만들어낸다. 또한 '상여소리'에서는 소리꾼과 연주자들이 주고받는 소리의 구조를 통해 전통의 공동체적 정서를 되살린다.

공연 후반부에는 컨트리공방의 대표곡 '버섯꾼', 미국 민요 'Shady Grove'를 통해 블루그래스와 국악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풍경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수궁가'는 컨트리 음악의 리듬과 결합해 특유의 해학과 흥을 한껏 살려낸다. 대금, 판소리의 깊은 성음과 벤조·만돌린·도브로·피들 같은 이색적이 악기가 어우러진 <놀:음>은 전통이 고정된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변화하는 음악임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컨트리공방

미국 민속 음악인 블루그래스(Bluegrass)를 기반으로 벤조(Banjo), 피들(Fiddle), 도브로(Dobro), 만돌린(Mandolin) 등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악기들을 연주하는 블루그래스 밴드이다. 2023년 미국 국제 블루그래스 음악협회(IBMA)에서 수여하는 국제 밴드 퍼포먼스상을 수상하여 월드 오브 블루그래스(World of Bluegrass)에 초청받았으며, 미국 내의 그랜드 올 오프리(Grand Ole Opry) 같은 전설적인 무대들에서 공연하였다. 2025년 국제 블루그래스 음악협회(IBMA)에서 올해의 밴드, 올해의 보컬에 각각 노미네이트되었으며, 창원시향과 아시아 최초로 블루그래스 밴드와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를 가지는 등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예빈(보컬·만돌린), 장현호(벤조), 윤종수(피들), 원선재(기타), 송기하(베이스)

정윤희

네 살 무렵부터 판소리의 길을 걸은 소리꾼으로,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이다.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주역을 맡고 있다. 한양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 석·박사 과정 수료 후,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보성소리 '적벽가', '심청가', '춘향가' 완창과 함께, 보성소리 '적벽가', '심청가' 눈대목 음원을 발매했다. '제23회 공주 박동진 명창·명고대회' 명창부에서 최연소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정심정음'의 신념 아래 전통 판소리의 본질을 지켜가고 있다.

연주 강병하(대금·태평소·타악)

여우락 프리토크 Pre-Talk

공연의 문을 여는 10분, 예술가와 공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 진행 및 해설 : 이한철 예술감독
- 시간 : 공연 시작 후 10분간
- 장소 : 달오름극장 객석

생기로운 장단생활

김백찬 X 김반장과 생기복덕

7월 19일(일)

15:00

하늘극장

불안의 시대, 나만의 생기 템포를 찾는 시간

<생기로운 장단생활>은 작곡가 김백찬과 밴드 김반장과 생기복덕이 함께 만드는 무대로, 한국 전통 장단이 지닌 리듬과 에너지를 통해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는 시간을 선사한다. 탄탄한 작곡 세계를 구축해온 작곡가, 삶과 현장의 감각으로 음악을 만들어온 세 명의 뮤지션, 그리고 동해안별신굿 전승교육사가 만나 전통과 현대, 국악과 록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판을 펼쳐 보인다.

공연은 복을 기원하는 소리 '비나리'로 시작된다. 관객과 무대가 함께 장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며 좋은 기운을 나누는 순간이다. 이어 피리 독주로 들려주는 '창부가', 그리고 'Sound of Light(Intro)+들판의 시대'는 어둠을 지나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는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전한다. 강렬한 밴드 사운드와 일상의 풍경이 유쾌하게 충돌하는 '마늘밭 매드니스'에서는 공연 특유의 해학과 활력이 돋보인다.

중반부의 '안녕'은 씻김굿의 정서를 바탕으로 묵은 감정과 마음의 매듭을 풀어내는 곡이다. 이어 '추월만장'은 판소리 '심청가'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깊은 감동을 전하고, '한님 아리랑'은 우주와 인간에 대한 사유를 신비로운 울림으로 펼쳐낸다. 장단의 흥겨움 속에서도 삶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여운이 이어진다.

후반부에는 '취'에서 대취타의 기세와 태평소의 강렬한 울림이 메탈적인 라이브 에너지와 만나 폭발적인 무대를 만들어내고, '잡으시오'를 통해 복과 덕,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한 유쾌한 성찰을 전한다. 이어지는 피날레 곡 '모십니다'는 김반장의 대표 레퍼토리에 김백찬의 음악적 색을 더해 새롭게 완성한 곡이다. 공연 내내 쌓아온 장단의 기운을 한껏 끌어올리며 생기 넘치는 울림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장단의 힘은 관객의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들썩이게 만든다. 팽과리와 태평소, 피리의 생생한 울림 위에 기타와 베이스의 현대적인 사운드가 더해진 <생기로운 장단생활>은 단순히 듣는 공연을 넘어 함께 호흡하고 반응하는 살아 있는 판이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잊고 있던 자신의 리듬을 되찾고 싶다면, 이 무대가 전하는 건강한 활력과 위로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김백찬

김백찬은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는 음악가이다. 그의 음악은 무엇보다 '대중과의 소통'에 뿌리를 두고, 국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영화, 방송,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전통의 어법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는 그의 작업은 낯설지 않게, 그러나 새롭게 귀에 닿는다. 익숙한 순간 속에 스며들어, 무심코 흘려보내기 어려운 리듬과 선율로 일상의 장면을 채워간다. KBS 국악대상 작곡상(2019)을 수상했으며, 국립국악원 70주년 기념 포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2021)을 받았다. 대표곡으로는 수도권 지하철 환승역 배경음악으로 널리 알려진 '열씨구야'가 있다.

김반장과 생기복덕

생기복덕은 드럼과 보컬의 김반장, 기타의 김세형, 베이스의 김민호, 그리고 동해안 별신굿의 계승자 박범태가 함께 빚어내는 록 밴드이다. 이들의 음악은 슈게이징의 몽환, 사이키델릭의 확장, 포스트록의 서사, 아프로비트의 리듬 위에 한국 전통 장단을 겹쳐, 시간과 장르의 경계를 유명한다. 서로 다른 결의 소리들이 부딪히고 스며들며, 낯설고도 익숙한 진동을 만들어낸다. 그들에게 전통 장단은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맥박치는 살아있는 리듬이다. 끊임없이 배우고 흔들리며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 속에서, 생기복덕은 오늘의 감각으로 전통을 새롭게 호흡하게 한다.

김반장(드럼·보컬), 박범태(장구·징·태평소·보컬), 김세형(기타), 김민호(베이스)

연주 이진희(어쿠스틱기타·일렉기타), 안은경(피리·태평소), 오혜원(보컬), 성보나(25현 가야금)

기획 (주)예술숲

연출 김면지

조연출 박탄

장마

김수인 X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7월 22일(수) - 23일(목)

19:30

달오름극장

장맛비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국악과 블루스로 풀어낸다

소리꾼 김수인과 블루스 밴드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가 함께하는 <장마>는 판소리와 블루스라는 서로 다른 듯 닮은 두 음악의 정서를 한 무대 위에 펼쳐내는 공연이다. 깊은 한과 삶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판소리, 그리고 인간의 내면과 감정을 진하게 담아내는 블루스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놀라울 만큼 비슷한 결을 지니고 있다. 이번 공연은 두 장르가 서로의 선율에 기대고 스며들며 '국악이 블루스가 되고, 블루스가 국악이 되는' 특별한 음악적 풍경을 만들어낸다.

공연은 안개 - 가랑비 - 소나기 - 장대비, 그리고 해오름으로 이어지는 장마의 흐름을 따라 전개된다. 각기 다른 빗줄기의 풍경과 감정에 어울리는 곡들을 새롭게 창작하거나 편곡해 하나의 서사처럼 엮어낸다.

경상도 민요 '옹헤야'는 블루스 특유의 농염하고 젼들한 분위기로 재탄생하며 익숙한 민요의 새로운 매력을 들려준다. 또한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의 '새타령'에는 판소리가 더해져 다양한 새소리와 신명 나는 에너지가 어우러진 독특한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창작곡 '사철청춘가'는 판소리 '사철가'를 모티브로 탄생한 곡이다. 비가 그친 뒤 떠오르는 햇살처럼, 지나온 시간과 상처를 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공연의 또 다른 감상 포인트는 출연진 모두가 연주와 노래를 함께 소화한다는 점이다. 김수인은 판소리와 가야금을,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는 기타·베이스·드럼 연주와 보컬을 맡으며 서로의 음악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블루스 밴드의 묵직한 리듬 위에 가야금의 섬세한 울림과 판소리의 깊은 성음이 더해지며 낯설지만 매력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장마>는 서로 다른 두 음악이 만나 만들어내는 새로운 울림 속에서, 비가 지나간 자리마다 피어나는 생명력과 위로를 관객과 함께 나누는 무대가 될 것이다.



김수인

현재 국립창극단원으로 전통과 현대적 감성을 동시에 지닌 소리꾼 김수인은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동초제 흥보가'의 전수 장학생이며, 임방울국악제 판소리 일반부 장원을 수상했다. 2023년에는 JTBC <팬텀싱어4>에 출연해 최종 3위를 기록하며 국악 크로스오버의 새로운 장을 펼쳤고, 2024 포브스코리아 '30 under 30' 예술 부문에 선정되어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현재 국립창극단의 다양한 작품에 주·조연으로 활약하며 전통에 깃든 현대적 감성의 창작 활동을 통해 우리 국악을 알리고 있다.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블루스 밴드,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는 동아시아 최초로 세계 블루스 대회(International Blues Challenge)의 결승 무대에 오른 이후, 세계 각지의 블루스 뮤지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도 '전통적인 블루스의 결'을 제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에너지로 확장해낸다는 평가를 받는 이들은, 단순한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관객을 끌어들이는 생동감 있는 그루브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블루스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다시 환기시키는 팀이다.

리치맨(기타·보컬), 백진희(베이스), 아이오(드럼)

연주 배 환(건반), 지명인(판소리), 이치현(판소리)

테크니션 이철수

여우락 프리토크 Pre-Talk

공연의 문을 여는 10분, 예술가와 공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 진행 및 해설 : 임희윤 음악평론가
- 시간 : 7월 22일(수) 공연 시작 후 10분간
- 장소 : 달오름극장 객석

네, 다음 곡은요

유태평양

7월 24일(금) - 25일(토)

19:30

하늘극장

끝이 아닌 다음을 향해 건네는 노래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네, 다음 곡은요>는 음악감독 유태평양이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이자, 관객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다. 공연은 판소리와 자작곡, 대중음악적 감각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일상의 순간들을 유태평양 특유의 솔직하고 유쾌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삶의 복잡함과 망설임, 후회와 희망,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노래 속에 담긴다.

공연의 시작은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다. 유태평양이 처음 소리를 배우며 만난 첫 소리이자 지금도 가장 아끼는 대목으로, 제비가 박씨를 물고 흥보의 집으로 날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이 소리는 공연 전체를 관통하는 씨앗이 되어 이후 이어지는 모든 노래의 출발점이 된다.

이어 '칠천칠백원', '왜 그런 날 있잖아', '돈아도나', '이사팔', '38사이즈' 등의 자작곡에서는 택시 기사와의 짧은 만남, 엘리베이터를 잘못 탄 하루, 돈에 대한 고민, 반복되는 이사와 선택의 순간들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풍경이 펼쳐진다. 익살스럽고 재치 있는 이야기 속에는 결국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공연 후반부에는 제주민요에서 영감을 받은 '이어도사나', 힘을 빼고 살아가자는 '휘뚜루마뚜루', 관객과 함께 부르는 '술타령', 그리고 판소리 '춘향가'의 느린 사랑가를 새롭게 해석한 '사랑가'가 이어지며 더욱 풍성한 음악적 색채를 보여준다. 마지막 곡 '다음소리'에서는 공연의 시작을 열었던 '제비노정기'가 다시 등장해 비나리로 확장되며 객석을 향한 축원의 노래가 된다.

<네, 다음 곡은요>는 여우락의 폐막공연이지만 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친 뒤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관객들에게 "네, 다음 곡은요"라고 말하며 또 다른 내일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건넨다.



유태평양

어린 시절부터 국악 신동으로 주목받았으며, 여섯 살에 '흥보가', 초등학교 시절 '수궁가'를 완창하며 일찍부터 소리의 길을 걸어왔다.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유학을 통해 타악기와 다양한 세계 음악을 접하며 음악적 시야를 넓혔고, 전통 판소리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소리 세계를 꾸준히 확장해왔다. 국립창극단 입단 이후에는 여러 작품에서 주·조역을 맡으며 무대 경험을 쌓아왔고, 방송과 다양한 공연을 통해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면서도 오늘의 감각으로 판소리의 현재와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꾼이다.

연주 김준서(밴드마스터·건반·편곡), 강환수(베이스), 조한민(타악), 신지훈(기타), 김선빈(드럼)

코러스 김시울, 정이안, 장무영, 김아진, 손연우, 김민준, 이승빈, 고마음, 최이정

연출 최현준 조연출 이지혜 공연매니저 유휘찬 안무 김여주

WHAT'S NEXT?

세상을 바꿀 NEXT 산업을 지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 DOOTA

오늘 보신 공연의 감동!
두타몰에서 관람 인증하고
특별 혜택을 확인하세요.

두타몰 4종 혜택 (~26.12.31)

푸드코트
3천원 할인



셰이크웍
무료 프라이



앤티앤스
무료 커피



2시간
무료 주차



대 상 | 국립극장 공연 관람권 소지 방문 고객(회원 가입 필수)
방 법 | 두타몰 고객센터(5F) → 관람권 및 회원 확인 후 발급

영업시간
10:30 - 24:00

국립극장 직무대리 김석일

제작진

예술감독 이한철
음악감독 유태평양
기술감독 서정민
무대감독 오상영 정대교
양정원 임기수 박재민
무대디자이너 박은혜
조명디자이너
주영석 원재성 김종락
음향디자이너
지영 이재식 이상현
무대제작 강규한
기술조감독 박정우
무대디자인보 신나경
자막편집·오퍼레이터 신유민
홍보물 사진 전강인
책임프로듀서 이서정
프로듀서 황선미 박세미
AD 이승현 빈수진
마케팅 이재금 이아림 김수린

국립극장 제작진

공연기획부

공연기획부장 이동현

공연기획팀

공연기획팀장 권태연
책임프로듀서 이서정 이재금
행정 이용희 송성남 이소라
공연기획팀 박세미 황선미
이아림 김수린 이승현 빈수진
홍지원 이승일 오다운 정은서
강현주
하우스매니저
이선옥 박지현 변해진 임지은
티켓마스터
정연정 오윤지 김재경
공연안내
정지윤 이인영 이지윤
어린이놀이방 이은혜

무대예술부

무대예술부장 손후윤

무대기술팀

무대기술팀장 이정행
기술행정 김홍석
안전관리 목호찬 최성훈
무대감독 오상영 정대교
양정원 임기수 박재민
기계감독 이정환
기술지원 김진년
조명감독·디자이너
주영석 원재성 김종락
프로그래머·오퍼레이터
이희선 이준 공미진
최기준 함승완
팔로우스팟 오퍼레이터
함승완 은명희
기술지원 박문섭 신의정
음향감독·디자이너·오퍼레이터
지영 이재식 이상현
기술지원 이현주 김은희
진하명 이예원 최경은
영상감독·디자이너·오퍼레이터
지병환 한기창 임영선

무대미술팀

무대미술팀장 정복모
미술행정 김성식
장치감독 강규한
제작·운영 강승구 박일천
김정규 유민석 김항원 김선우
윤하은 황인석 최재림 김강현
작화감독 박순용
기술지원 김유리 최다정
소품감독 채수형
기술지원
홍재민 박현이 김민주
장신구감독 김은경 이주선
의상감독 조근하 김효영
기술지원 유상현

무대예술지원센터

감독 김재영
기술지원
한형석 김혜선 오가연 조가현

교육전시부

교육전시부장 김석일

홍보팀

홍보팀장 방강덕
책임프로듀서 우다슬
홍보
정선영 박은영 구해나 김은채
행정 정재우
전산
이주한 안수진 정일석 노승관
홈페이지 유정수
사진 이다빈

운영지원부

운영지원부장 직무대리 강기호
총무팀장 강기호
서클버스 운영
황정유 정신동 서재광 이성식

현장진행 인력

성아연 신소윤 장유빈 정우인

협력파트너

홍보물 디자인 스튜디오 엠니
영상 홍보물 모노크롬
씨리얼픽쳐스
프로모션 디자인
전소영(오프라인) 인오즈(온라인)
옥외 홍보물 심애드
악기 극동악기렌트
후원  한국산업은행

2026-2027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NATIONAL REPERTORY SEASON

2026/08/21(금) - 2027/06/27(일)

패키지 티켓 오픈 2026/07/10(금)
일반 티켓 오픈 2026/07/14(화)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6-2027

국립극장

National Theater of Korea

0462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59, Jangchungdan-ro, Jung-gu, Seoul Korea(04621)

www.ntok.go.kr

 여우락 인스타그램 @yeowoorak

